

국감도 조국전쟁? ... 국민은 피로하다

이번주 수요일 국정감사 개막... 내달 21일까지 19일간 민주, 정책질의 집중... 한국당·바른미래, 조국 대공세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이 오른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한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며, 8·9 개각 이후 50일 넘게 이어져 온 조국 정국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첨예한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조국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총량라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과 조 장관의 전 재수기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가 사업, 산업통상위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 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등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엇보이고 있어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이 내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 등이 거론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방위비 분담금, 이와 관련한 한미동맹 문제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도 국감 핵심 이슈다. 당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정감사와 관련, 행안위는 오는 10일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도청과 도청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는 8일 대전고법·지검에서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남대에서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 광주국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 경선, 대통령 관련 직함 사용 배제 검토 이해찬 대표 언급... '노무현재단 경력' 배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 여론 조사에서 사용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 대통령 비서실 직함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노무현재단'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재단 관련 직함도 경선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지역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자리에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들은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는다.

당내 다수인 '친문'(친문재인) 당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력에 들어가면 유리하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에서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이름 대신 '15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친문 진영의 반발 등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도록 하

되, 청와대 경력과 장·차관급 이상의 경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경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최소 5%, 많게는 10% 이상의 지지를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경력에 포함되는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들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0여명 안팎에 이르고 있어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 진영과 친문 진영의 힘 투기가 시작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무현재단 이력'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4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노무현재단 경력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6년 재단 경력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기획위원·자문위원·운영위원을 추가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민심잡기' 영암서 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民心) 잡기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8일 영암 상호체육관에서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이용재 도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전남도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위향상,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소동지위네트웍스(이하 국감소동TF)'를 발족, 애로사항과 정책 사각지대 등에 대한 지역내 제보도 접수받아 반영키로 했다.

'국감소동TF'는 '도민·당원이 함께 하는 2019국정감사'라는 취지에 맞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전경선 도당 수석상임부위원장(도의원)이 단장, 우승희·최선국·정옥남 도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SNS 등에서 이뤄지는 제보와 제안 내용을 접수받아 상임위별로 분류하여 중앙당에 전달, 국감질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문준용 또 '설전'

대선 당시 특혜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 놓고 반박에 재반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준용씨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공개 판결 나오니까 찬

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스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

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주장은 지난 27일 준용씨가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바"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준용씨는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시켜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 의원은) 사람 누명을 씌우는데 선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분당 임박?

유승민 "행동 나설 것"... 바른정당계 10~11월 탈당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기류다. 유승민 의원이 28일 "제가 바른미래당에 와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 저도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10~11월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9명과 대적적에 선 비당권파 1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당권파 가운데 8명은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한 바른정당 출신이고, 7명은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내년 1월에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될 것이

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에 출당 요구를 타진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안철수계 7명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비례대표다.

이들의 출당은 결국 바른정당계와의 동반 탈당 및 창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출당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비당권파가 15명임을 고려하면 호남계 등 당권파 9명 가운데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호남 의원들은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의외로 쉽게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련,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